

- 주요 뉴스: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 지속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곧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
 - 6월 FOMC 예정, 금리 동결 확실 시. 다만 경제전망요약과 점도표 등에 관심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가시권 관세 불확실성은 존재
 - 일본 언론, 내년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축소 예상.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난항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충돌,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으로 하락 전환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관련 우려 등으로 1.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부진한 주간 고용지표, 9월 금리인하 전망 지속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3%,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예상치 하회한 5월 소비자생산자물가 등으로 하락
독일은 영란은행 금리인하 기대 여파,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0.8% 상승, 한국 CDS 보합

		6/13일	6/6일	전주말대비			6/13일	6/6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5,977.0	6,000.4	-0.39%	국채 금리 10y	미국	4.40%	4.51%	-11bp
	유럽	544.94	553.64	-1.57%		독일	2.54%	2.58%	-4bp
	중국	3,377.0	3,385.4	-0.25%		영국	4.55%	4.64%	-9bp
	일본	37,834	37,742	+0.25%	CDS 5y	한국	28bp	28bp	+0bp
	한국	2,894.6	휴장	+2.94%		중국	47bp	48bp	-1bp
환율	달러지수	98.18	99.19	-1.01%	위험 지표	EMBI+	371bp	371bp	-0bp
	유로화	1.1549	1.1397	+1.33%		VIX	20.82	16.77	+24.15%
	엔화	144.07	144.85	+0.54%		WTI유	72.98	64.58	+13.01%
	위안화	7.1832	7.1926	+0.13%	원자재	구리	481.5	484.8	-0.69%
	원화	1,369.6	휴장	-0.82%		금	3,432.3	3,310.4	+3.6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 지속.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곧 평화가 올 것으로 기대

- 13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 이후 이란도 보복 공격에 나서며 양국 간 무력충돌이 3일째 지속.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추면 자국도 보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뒤 이란 IRNA 통신은 새로운 보복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
- 이스라엘은 공습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천명. 군 당국은 對이란 공격 목표를 주요 군사 및 핵 시설에서 에너지 시설로 확대하는 가운데, 15일에도 이란의 무기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에게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발언
-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발표. 다만 예정된 이란과의 핵 협상은 취소되었고, 이란이 자국을 공격하면 강력 보복하겠다고 경고
- 크렘린궁의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규탄하고 갈등의 추가 확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발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
- 로이터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JPMorgan은 이러한 극단적 가정의 현실화 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 다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공급 우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로 유가가 비이성적 수준까지 상승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6월 FOMC 예정, 금리 동결 확실 시. 다만 경제전망요약과 점도표 등에 관심

- 17~18일 열릴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이에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을 추정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점도표, 경제전망요약,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 등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 신호(연내 1회 금리인하 가능성 등)가 발신될 수도 있다고 분석(Bloomberg Economics). 이 외에 일본은행(17일)과 영란은행(19일)의 정책회의도 예정

■ 미국 항공사 Boeing, 중국에 항공기 인도 재개. 美中 희토류 협상의 불완전성도 제기

- Boeing은 자사 여객기의 중국 항공사 인도가 재개되었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이를 美中 관세협상 이후 긴장이 완화된 결과로 평가. 한편, 일부에서는 최근 있었던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희토류의 경우 수출 해제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가시권. 관세 불확실성은 존재

- ECB의 주요 책무는 물가 안정인데,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연율 2%)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있다고 평가.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첨언
- 한편, 유로존 4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2.4% 감소. 산업생산이 전월비 줄어든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인상 여파인 것으로 추정

■ 중국 5월 은행 신규대출, 예상치 하회. 미국과의 무역전쟁 우려 등이 반영

- 인민은행에 따르면, 5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6200억위안으로 전월(2800억위안) 대비 증가. 다만 이는 예상치(8500억위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기업 및 소비자들이 차입에 신중하다고 평가

■ 일본 언론, 내년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축소 예상.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난항

- 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번 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분기별 국채 매입 축소 규모를 줄일(4000억엔→2000억엔) 것으로 전망. 이는 최근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
- 한편,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타결에 난항.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미국 측에 모든 관세 조치를 폐지하기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표. 하지만, 미국 측은 계속해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10%의 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추가 관세만이 논의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16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중국 5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이란의 對이스라엘 공격 대응. 4가지 예상 시나리오와 관련 위험이 존재 - 블룸버그

(Iran's Four Possible Responses to Israel — and Their Risks)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반격 형태에 따라 국운 및 중동지역 갈등 해소의 전개 양상도 달라질 전망. 구체적으로 이란의 대응에 다음의 4가지 시나리오 및 관련 위험 예측이 가능. 첫째, 이스라엘 보복에 있어 미국 관련 목표물을 배제한 공격적인 전략 구상. 하지만, 다국적 방공망 제거 없는 공격은 초라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 둘째, 이스라엘 및 협력국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 이는 미국과의 확전을 의미하며, 이란 정권은 준립의 위험에 직면. 셋째, 필사적인 핵무기 개발 추진. 성공 시 테러국가 전략과 미국 개입으로 참패 예상. 넷째, 체면치레 수준의 보복 이후 미국과 핵협상 타결. 이는 이란 정권에 치명적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외교적 횡재가 될 소지

■ 새로운 유가 변동성 확대의 시대,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구 - Financial Times

(Oil in the new age of volatility)

- 산업 효율성 향상 등으로 단위 GDP 생산에 필요한 석유량이 급감했으나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유가 급등을 초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시 유가의 150달러 급등을 예상(ING Barings). 물가 부담 가중 및 금리인하 제약 등의 우려도 제기
- 특히 미국-이란 핵 협상 합의가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공격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다음과 같은 유가 변동성 확대 시대를 고려한 준비가 중요. 첫째, 기존 경제 모델의 불완전성을 인식. 둘째, 금융사 및 사회학 등을 활용한 정확한 사건 이해. 셋째,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장기적 관점의 시장 접근(Pimco)

■ 미국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 및 약세, 관련 여파 대비할 필요 - 블룸버그

(King dollar's crown wobbles. Brace for fallout)

- 달러화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에도 반등이 제한적. 이는 달러화에 대한 신뢰 약화 및 약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 이번 달러화 약세는 금리 전망 혹은 성장을 격차 등의 일반적 요인보다 대규모 재정적자,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점이 특이
-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와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고려 시, 달러화 가치의 추가 하락이 예상. 이는 신흥국 통화에는 긍정적이거나 달러화 표시 원자재 수출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특히 현재와 같은 정치적 환경에서는 외환시장에서도 '외환 자경단(FX vigilantes)'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 중국의 수출 급증과 수입 정체, 일방향 무역구조 및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가속 - WSJ

(Trade With China Is Becoming a One-Way Street)

- 중국이 수출을 늘리면서 수입은 정체시키는 일방향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22년 말 이후 수입액은 변화가 없으나 수출은 33% 급증. 이는 당국이 국내 소비 진작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자급자족 전략에 집중하고,美中 무역전쟁 등으로 공급망 현지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추정
- 이러한 중국의 정책 기조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전제로 하는美中 장기 무역합의 체결을 어렵게 만들 소지. 또한 최근 중국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치가 250개 이상으로 급증해 주요국과의 무역 마찰도 증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일방향 무역은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 전세계 중앙은행, 연준과의 달러화 스와프라인 중단 가능성 등을 우려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are beginning to fret about dollar swap lines)

■ 미국 소매업체의 이익 증가,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흡수 - 블룸버그

(US Corporate Profit Fat Offers Cushion for Absorbing Tariffs)

■ 미국 증시, 개인 투자자는 주가 변동성 확대 및 관세 우려로 주식 비중 축소 - WSJ

(‘Why Am I Doing This?’ These Investors Are Locking In Stock Gains While They Can.)

■ 국제 유가, 공급 우위에 이스라엘이란 충돌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소지 - 블룸버그

(An Israel-Iran War May Not Rattle the Oi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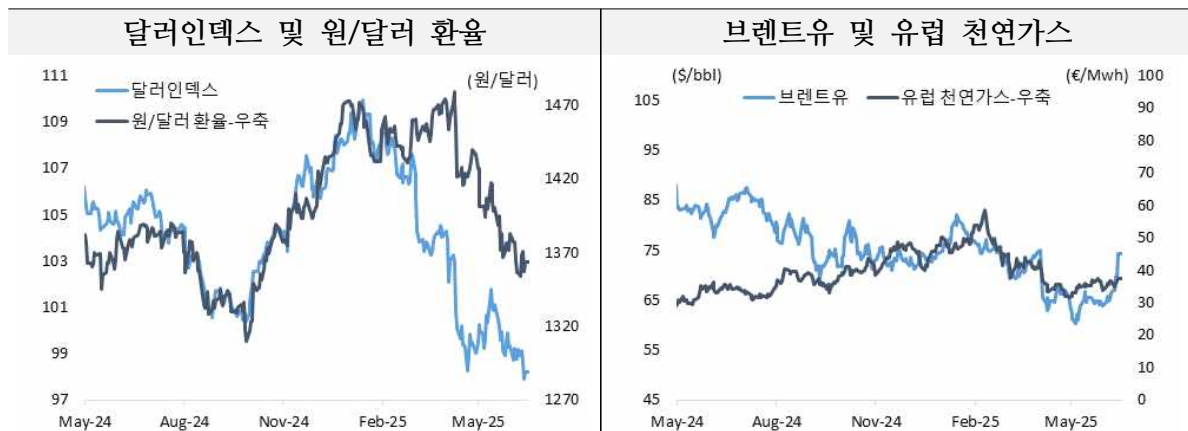
■ 일본 국채금리의 급등, 일본은행의 채권매입 축소 규모 결정에 압력 - Financial Times

(Surge in bond yields adds to pressure on Bank of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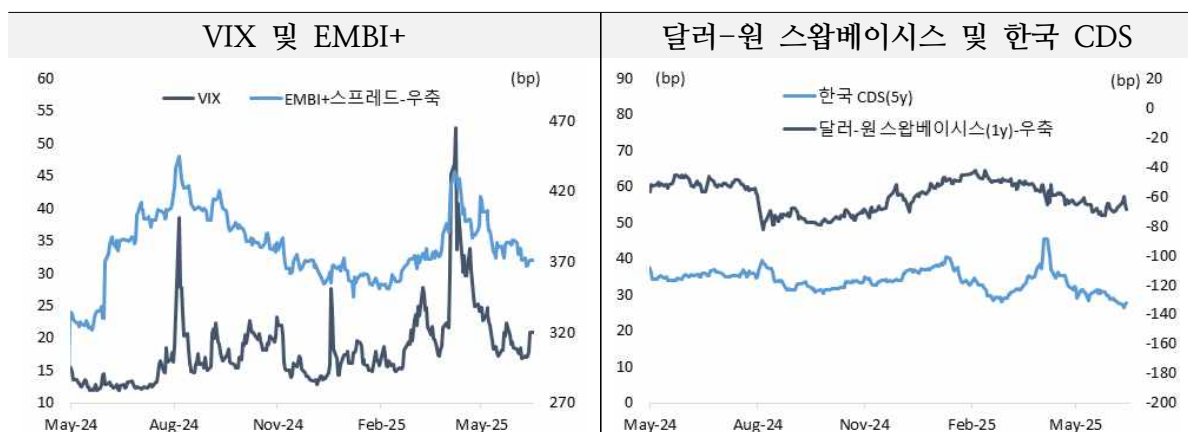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